

# 유아기 자녀를 둔 부부의 상호작용과 결혼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양육효능감의 매개효과 : 자기효과 및 상대방효과(APIM)를 중심으로

한혜림<sup>1)</sup> 이지민<sup>2)</sup>

## 요약

본 연구는 유아기 자녀를 둔 부부의 상호작용이 양육효능감을 매개하여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한국아동패널 중 7차년도 데이터를 사용하여 APIM 분석방법을 적용하였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부부 상호작용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부부 상호작용이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양육효능감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모두 아내와 남편에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향을 미친 모든 경로는 상대방효과보다 자기효과의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양육효능감은 부부 상호작용과 결혼만족도 간의 관계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유아기 자녀를 둔 부부의 결혼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효과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부부 스스로가 지각하는 부부 간의 상호작용과 양육효능감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제어:** 결혼만족도, 부부 상호작용, 양육효능감, 자기효과, 상대방효과

## I. 서론

현대사회의 급속한 사회적 변화는 결혼과 가족에 대한 정의, 가치관, 가족형태 등과 같은 전반적인 가족생활에 있어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과거와 달리 현대사회의 가족은 부부

1) 영남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연구원

2) 영남대학교 가족주거학과 교수

가 중심이 되는 핵가족 형태를 유지하게 되면서 부부 간의 애정과 신뢰, 상호작용 등 부부 관계에 대한 질이 더욱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윤기봉·지연경, 2017). 즉 현대사회의 부부는 결혼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느냐에 따라 전반적인 가정의 분위기나 정서 등이 좌우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전반적인 가정의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부의 결혼만족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부부들은 결혼 생활 과정에서 개인의 성격이나 성장해온 배경, 양육 및 가사 문제 등으로 인해 많은 갈등과 위기를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낮은 결혼만족도를 경험함으로써 심한 경우에는 별거나 이혼을 통해 가족 해체를 선택하고 있다(나남숙·이인수, 2017). 2018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이혼율은 2003년까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04년부터 감소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점점 혼인율이 낮아짐에 따라 이혼율도 함께 감소하는 현상으로, 실제로는 이혼율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높은 이혼율을 나타내고 있다(통계청, 2018).

특히 이혼율은 결혼 후 4년~9년 사이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가족발달이론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이 시기는 '자녀 양육기'에 해당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유계숙, 2003). 해당 시기는 학령기 전의 자녀를 양육하는 시기로, 자녀 양육 및 가사 일에 대하여 부부 간의 역할을 재정비하는 것이 중요한 과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자녀 양육기'에 있는 부부가 해당 과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되면, 자녀 양육에 대한 문제, 부부관계에 대한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결혼만족도 또한 현저하게 감소될 수 있다(윤기봉·지연경, 2017). 그러므로 이 시기는 해당 과업을 이루기 위한 부부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평등한 역할분배 등이 중요하게 대두된다.

만약 과업을 이루기 위한 부부 간의 충분한 소통과 협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결혼만족도가 급속히 감소하여 부부 간의 갈등, 위기, 이혼 등으로 이어지게 될 수 있다. 실제로 여러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자녀 양육기'인 유아기 자녀를 둔 시기는 결혼만족도가 낮아지는 최초의 시기이자 부부 갈등의 시발점인 시기로 나타났으며, 이 시기를 기점으로 결혼만족도가 점점 더 낮아지는 양상을 보였다(나남숙·이인수, 2017; Rehman, Janssen, & Newhouse et al., 2011). 이러한 낮은 결혼만족도는 별거, 이혼 등과 같은 가족해체를 예측하는 강력한 요인으로, 부부의 심리·정서적인 측면에 어려움을 줄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고통을 줄 수 있다(Friedman & Martian, 2011). 그러므로 '자녀 양육기'에 해당하는 유아기 자녀를 둔 부부의 결혼만족도를 높임으로써 건강한 가정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도모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결혼만족도에 대한 연구는 가족해체를 예방하고 건강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방안으로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계속적으로 진행되어 왔다(Lavner, Karney & Bradbury,

2016; Rehman et al., 2011). 결혼만족도는 결혼생활에 있어서 배우자로부터 느끼게 되는 행복감, 만족감, 애정에 대한 주관적인 정도를 의미한다(노성향, 2018). 많은 선행연구에 따르면, 결혼만족도는 부부 개인의 심리·정서적, 신체적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부부가 중심이 되는 현대 가족관계에서 그 중요성이 더 부각되고 있다(임희수, 2013). 이러한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여러 가지 변인들이 존재하는데, 특히 유아기 자녀를 둔 부부는 양육 및 가사 일에 대하여 계속해서 역할을 수정해 나가야하므로 무엇보다 부부 간의 심리·정서적인 교류, 의사소통 등과 같은 부부 상호작용이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으로 주목받고 있다(김경미, 2009; 허은경·김영희, 2016; Korja, Piha, & Otava et al., 2016).

부부 상호작용은 부부가 가사 및 양육에 대한 역할을 평등하게 감당할 뿐만 아니라 변화하는 가족의 환경, 상황 등에 따라 융통성 있게 가족 역할을 함께 수행하며, 어려운 일이나 위기에 직면했을 때 서로 소통하며 돕는 행위를 의미한다(허은경, 2014). 유아기 자녀를 둔 부부의 상호작용과 결혼만족도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자녀 양육이나 가사 일을 부부가 함께 수행하지 않고 부인이 대부분 감당하는 경우, 남편에 비해 아내가 양육 및 가사에 대한 부담감이나 책임감을 더 많이 느낄 수밖에 없으므로 높은 생활 스트레스와 낮은 결혼만족도를 경험한다고 나타냈다(김경미, 2009). 한편 다른 선행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아내뿐만 아니라 남편도 겪는 어려움이라고 보았다. 양육이나 가사 일의 많은 부분을 수행하지 않는 남편일지라도 자녀 양육이나 가사 문제에 대한 아내와의 소통에 관해 고민하고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와 같은 스트레스가 지속될 경우 결혼만족도의 감소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냈다(노성향, 2018; 연은모·최효식, 2015). 이렇듯 부부는 어느 대상보다 서로 밀접하게 영향을 주고받는 존재이므로 부부 중 한명이라도 부부 간의 역할 융통성과 서로 간의 응집성, 즉 부부 상호작용이 낮다고 인식하는 경우, 부부 모두의 결혼만족도가 낮게 나타날 수 있다(나남숙·이인수, 2017). 즉 아내 또는 남편 중 한 명이라도 부부 상호작용이 낮다고 인식하게 된다면, 부부 관계에 대한 불만, 불안, 좌절 등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과 스트레스를 느끼게 되며, 이는 결국 결혼만족도의 감소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부부 중 한명 또는 두 명 모두가 지각한 부부 상호작용은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유아기 자녀를 둔 부부의 결혼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부부 간의 상호작용 정도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부부 상호작용과 결혼만족도에 대해 살펴보는 여러 선행 연구에서는 부부 상호작용이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관해 더 자세히 살펴봄과 동시에 결혼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세부적으로 모색하기 위해 부부 상호작용과 결혼만족도를 이어주는 변인이자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나타내는 변인인 매개변인에 대한 효과를 검증하였다

(이희윤·조유현, 2015; 허은경·김영희, 2016). 매개변인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유아가 자녀를 둔 부부가 지각하는 부부 상호작용 정도가 높을수록 자녀 양육과 관련된 사항을 부부가 함께 논의하며 수행하므로 자녀 양육과 가정생활에 있어서 불안이나 좌절 등은 낮아지는 반면, 양육에 관한 효능감은 높아지게 된다. 이와 같이 자녀 양육이 중요한 과업으로 대두되는 유아기 자녀를 둔 부부에게 있어서 높은 양육효능감은 부모로서의 자신감, 행복감을 느낄 뿐만 아니라 부부 간의 만족감도 높여주어 결혼만족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김경미, 2009; Korja et al., 2016). 즉 부부 상호작용이 높을수록 양육효능감이 높아지며, 양육효능감이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아짐을 의미한다. 또 다른 선행연구에서도 유아기 자녀를 둔 부부들 중에서 양육과 전반적인 가사 일에 대해 함께 수행하면서 서로의 역할에 대해 도와주고 보완해주는 부부일수록 양육효능감이 높게 나타났으며, 양육효능감이 높게 나타나는 부부일수록 결혼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영진·장은미, 2018; 허은경·김영희, 2016). 반면에 부부들 중 전반적인 가정의 일에 대한 역할에 유연성이 없고 부부 간의 응집성이 낮은 부부들은 양육에 있어서 낮은 자신감과 우울감, 불안감 등을 보이며 양육효능감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낮은 양육효능감은 부부 관계에 대한 불안감, 우울감, 불만족으로 이어져 낮은 결혼만족도를 나타냈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을 통해 양육효능감은 부부 상호작용이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매개하는 매개변인의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지금까지 진행된 결혼만족도에 관한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아내 또는 남편의 개별적인 효과에 초점을 두었으므로 아내와 남편 각각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검증된 경향이 있다. 그러나 부부는 타인과 맺는 관계들 중에서 가장 밀접하게 영향을 주고받는 상호적인 관계이므로 아내 혹은 남편은 상대방의 전반적인 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서로 중요한 영향을 내왕하는 특성이 있는 부부를 대상으로 연구를 할 때에는 특정 변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과 그 효과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한 방법으로 부부 각각의 영향에 대한 검증과 더불어 상대방의 영향에 대한 검증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윤기봉·지연경, 2017). 특히 본 연구는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이므로 부부 각각의 인식보다는 부부 모두의 결혼만족도를 분석해봄으로써 아내와 남편의 결혼만족도가 서로 어떤 다른 변인의 영향을 받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중 부부 상호작용이 결혼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해 알아보기 위해서는 실제로 부부가 서로 간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받는지, 받는다면 그 영향이 결혼만족도를 변화시키는데 어떤 효과가 있는지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기-상대방 상호의존모형(Actor and Partner Interdependence Model: APIM)을 활용하여 유아기 자녀를 둔 부부의 상호작용과 결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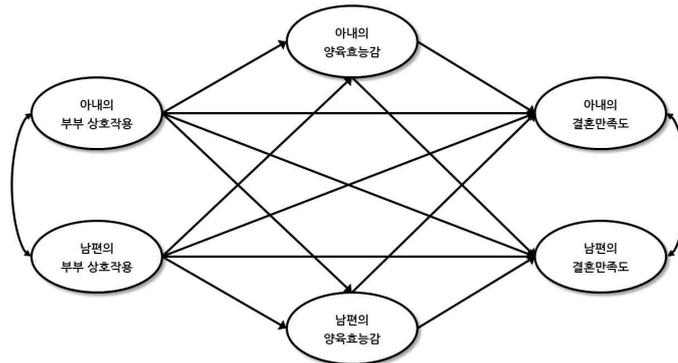
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양육효능감의 매개효과에 관해 부부 각자의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를 함께 확인하고자 한다. 이러한 본 연구를 통해 아내와 남편 간에 나타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를 확인함으로써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부부 교육, 부부 상담, 가족 정책 및 제도에 대한 개선사항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에 따른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으며,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유아기 자녀를 둔 부부의 상호작용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유아기 자녀를 둔 부부의 상호작용이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3] 유아기 자녀를 둔 부부의 양육효능감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4] 유아기 자녀를 둔 부부의 상호작용과 결혼만족도의 관계에서 양육효능감의 매개효과에 대한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는 어떠한가?



[그림 1] 연구모형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실시한 '한국아동패널' 중 7차년도(2014)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유아기 시기 중에서도 초등학교 시기로 넘어가기 직전의 만6세 자녀를 둔 부부를 대상으로 연구하였다. 이 시기는 학동기로 넘어가기 직전의 유아기로, 자

녀 양육에 대한 혼란을 겪으며 결혼만족도가 감소하는 때이므로, 해당 시기의 아내와 남편의 결혼만족도, 부부 상호작용, 양육효능감을 모두 포함하는 데이터인 7차년도 패널을 사용하여 해당 시기의 자녀를 둔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APIM을 활용하기 위해 완전제거 방식(listwise)으로 결측치를 제거하였으며, 총 1468쌍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 2. 측정도구

### 가. 결혼만족도

아내와 남편의 결혼만족도를 검증하기 위해 Chung(한국아동패널, 2014, 재인용)의 Revised-Kansas Marital Satisfaction Scale(RKMSS)을 사용하였다. 본 측정도구는 총 4개의 문항으로 '매우 불만족(1점)'에서 '매우 만족(5점)'으로 평정된 5점 Likert 척도이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아내와 남편이 지각하는 결혼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결혼만족도 측정도구의 문항으로는 '귀하는 배우자로서의 남편(아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귀하는 결혼생활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등이 있다. 이러한 문항에 대한 내적일관성 신뢰도는 아내  $\alpha=.933$ , 남편  $\alpha=.930$ 으로 나타났다.

### 나. 부부 상호작용

아내와 남편의 부부 상호작용을 검증하기 위해 Rivero, Martinez-Pampliega 그리고 Olson(한국아동패널, 2014, 재인용)의 Family Adaptability and Cohesion Evaluation IV(FACES IV)를 사용하였다. 본 측정도구는 총 14개의 문항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으로 평정된 5점 Likert 척도이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아내와 남편이 지각하는 부부 상호작용이 높음을 의미한다. 부부 상호작용의 하위요인은 응집성과 유연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응집성은 총 7개 문항으로, 부부 간의 감정적 결합의 정도를 의미하며, 해당 문항으로는 '우리 부부는 서로가 매우 가깝다고 느낀다', '우리 부부는 힘들 때 서로 도와준다' 등이 있다. 유연성은 총 7개 문항으로, 부부 간의 역할 관계와 역할들 속의 변화성의 정도를 의미하며, 해당 문항으로는 '우리 부부는 동등한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 '우리 부부는 필요할 때 변화에 적응할 수 있다' 등이 있다. 부부 상호작용 문항의 내적일관성 신뢰도를 살펴보면, 먼저 아내들이 응답한 데이터는 응집성  $\alpha=.933$ , 유연성  $\alpha=.923$ 으로 나타났으며, 남편들이 응답한 데이터는 응집성  $\alpha=.930$ , 유연성  $\alpha=.931$ 으로 나타났다.

## 다. 양육효능감

아내와 남편의 양육효능감 검증하기 위해 Gibaud-Wallston과 Wandersman(한국아동패널, 2014, 재인용)이 개발한 Development and utility of the parenting Sense of Competence Scale(DSCS)을 신숙재(한국아동패널, 2014, 재인용)가 변안하고 오미연(한국아동패널, 2014, 재인용)이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측정도구는 총 16개의 문항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항상 그렇다(5점)'으로 평정된 5점 Likert 척도이다. 해당 측정도구를 점수가 높을수록 아내와 남편이 지각하는 양육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해석하기 위해 문항 중 부정의 의미가 포함된 문항들은 역 채점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따라서 문항의 점수가 높을수록 아내와 남편이 지각하는 양육효능감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양육효능감의 하위요인은 부모 유능감, 부모 불안감, 기타로 구성되어 있다. 부모 유능감은 총 9개 문항으로, 부모 역할에서의 유능감 또는 부모-자녀 관계에 있어서 부모로서의 문제 해결 능력에 관한 자신의 기대의 정도를 의미하며, 해당 문항으로는 '나는 내가 아이를 돌보는데 있어 유능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아이와의 관계에서 생기는 문제를 잘 다룬다' 등이 있다. 부모 불안감은 총 4문항으로, 자녀를 양육하면서 느끼는 부모 역할에 관한 불안과 긴장을 의미하며, 해당 문항으로는 '좋은 부모가 될 수 없을 것 같아 걱정이다', '아이가 현재 보이는 있는 수준이 그 나이에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짜증난다' 등이 있다. 또한 기타는 총 3문항으로, 부모 유능감과 부모 불안감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문항을 의미하며, 해당 문항으로는 '나는 나의 행동이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잘 알고 있다', '나의 주된 관심은 자녀양육이 아닌 다른 분야에 있다' 등이 있다. 양육효능감 문항의 내적일관성 신뢰도를 살펴보면, 먼저 아내들이 응답한 데이터는 부모 유능감  $\alpha = .850$ , 부모 불안감  $\alpha = .852$ , 기타  $\alpha = .857$ 으로 나타났으며, 남편들이 응답한 데이터는 부모 유능감  $\alpha = .854$ , 부모 불안감  $\alpha = .867$ , 기타  $\alpha = .855$ 으로 나타났다.

## 3. 연구방법 및 절차

본 연구에서는 SPSS 24.0과 AMOS 24.0을 활용하여 연구문제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각 변인들의 기술통계치와 신뢰도, 변인들 간의 관계 등을 검증하기 위해 SPSS 24.0을 사용하여 기술통계, 신뢰도 검증, 상관관계 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구조모형에 대한 아내와 남편의 자기효과, 상대방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AMOS 24.0을 사용하여 측정모형 검증, 구조모형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 Ⅲ. 연구결과

#### 1. 주요변인의 기술통계 및 변인 간의 상관관계

본 연구의 각 변인들에 관한 기술통계와 상관관계는 <표 1>과 같다. 구조방정식 모형에서 분포의 정규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왜도와 첨도를 확인한 결과, 왜도와 첨도의 절대값은 각각 2와 4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나 정규분포 조건이 충족되었다(허준, 2014). 다음으로 각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검증한 결과, 모든 하위요인들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검증 결과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											
2	.37**	-										
3	-.27**	-.56**	-									
4	.08**	.11**	-.20**	-								
5	.62**	.44**	-.29**	.06**	-							
6	.60**	.44**	-.29**	.07**	.08**	-						
7	.49**	.29**	-.23**	.11**	.42**	.37**	-					
8	.20**	.15**	-.14**	.08**	.30**	.23**	.17**	-				
9	-.19**	-.26**	.33**	-.11**	-.21**	-.19**	-.27**	-.19**	-			
10	.08**	.07**	-.25**	.08**	.55**	.50**	.58**	.34**	.35**	-		
11	.49**	.29**	-.25**	.12**	.30**	.52**	.36**	.08**	.17**	.07**	-	
12	.43**	.27**	-.25**	.09**	.50**	.52**	.50**	.40**	.31**	.06**	.08**	-
<i>M</i>	3.20	3.47	2.73	3.31	3.96	3.59	3.54	3.06	2.52	3.43	3.98	3.67
<i>SD</i>	.67	.50	.73	.45	.55	.57	.56	.34	.67	.45	.53	.56
<i>SK</i>	-.83	-.15	.07	-.26	-.97	-.56	-.87	-.33	.03	-.11	-.70	-.43
<i>KU</i>	.93	.33	-.16	.60	2.87	1.18	.83	1.57	-.35	.47	2.48	1.30

1. 아내의 결혼만족도, 2. 아내의 부모 유능감(양육효능감), 3. 아내의 부모 불안감(양육효능감), 4. 아내의 기타(양육효능감), 5. 아내의 응집성(부부 의사소통), 6. 아내의 유연성(부부 의사소통), 7. 남편의 결혼만족도, 8. 남편의 부모 유능감(양육효능감), 9. 남편의 부모 불안감(양육효능감), 10. 남편의 기타(양육효능감), 11. 남편의 응집성(부부 의사소통), 12. 남편의 유연성(부부 의사소통)

\*\*  $p < .01$ .

## 2. 측정모형 검증

본 연구의 측정변수가 잠재변수를 적절하게 측정하였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측정모형 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본 연구에서는 절대적합지수에 해당하는 TLI와 CFI, RMSEA 값을 통해 모델의 적합도를 평가하였다. 일반적으로 TLI, CFI는 1에 가까울수록 좋은 적합도이며, RMSEA는 .05이하이면 좋은 적합도, .08이하이면 괜찮은 적합도로 평가한다(허준, 2014). 본 연구의 적합도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측정변수에 대한 잠재변수의 요인 부하량은 모두  $p < .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측정모형 검증 결과

$\chi^2$	df	CFI	TLI	RMSEA
1078.473	335	.969	.965	.039

## 3. 자기효과 및 상대방효과 검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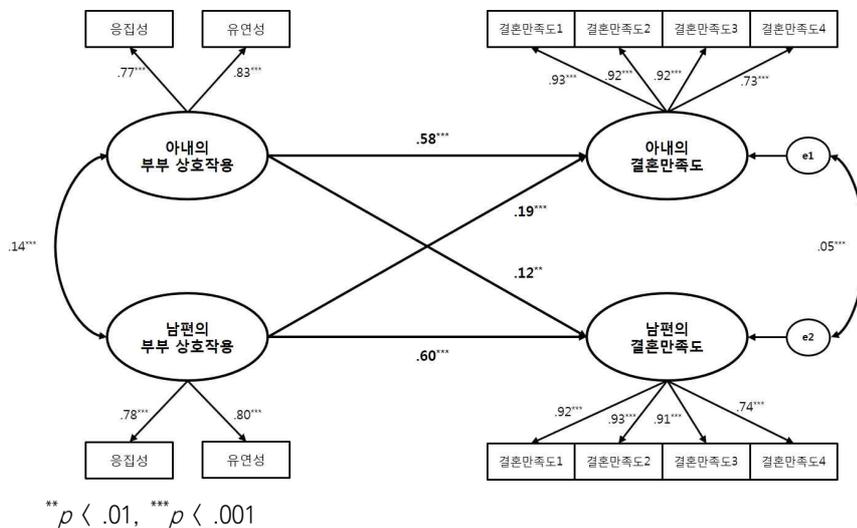
### 가. 부부 상호작용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검증

부부 상호작용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그림 2]와 같이 모형을 설정한 다음 구조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부인과 남편 집단 간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표 3>과 같이 총 4번의 등가제약을 진행하였다.

부부 상호작용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한 결과,  $\chi^2 = 541.781(df=130)$ , CFI = .978, TLI = .975, RMSEA = .046으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 상호작용과 결혼만족도의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를 검증한 결과를 살펴보면, 아내가 지각한 부부 상호작용은 남편의 결혼만족도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편이 지각한 부부 상호작용도 아내의 결혼만족도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부 상호작용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모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등가제약을 한 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부부 상호작용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아내의 자기효과( $\beta = .58, p < .001$ )와 남편의 자기효과( $\beta = .60, p < .001$ )는 서로 유의하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부부 상호작용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기효과는 남편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부부 상호작용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부인의 상대방효과( $\beta = .12, p < .01$ )와 남편의 상대방효과( $\beta = .19, p < .001$ )는 서로 유의하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부부 상호작용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상대방효과는 남편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부부 상호작용이 아내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자기효과( $\beta = .58, p < .001$ )와 상대방효과( $\beta = .19, p < .001$ )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부부 상호작용이 아내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아내의 자기효과가 남편의 상대방효과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부부 상호작용이 남편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자기효과( $\beta = .60, p < .001$ )와 상대방효과( $\beta = .12, p < .01$ )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부부 상호작용이 남편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남편의 자기효과가 아내의 상대방효과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 부부 상호작용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검증 결과

<표 3> 기본모형과 등가제약 모형 간의  $\chi^2$  차이검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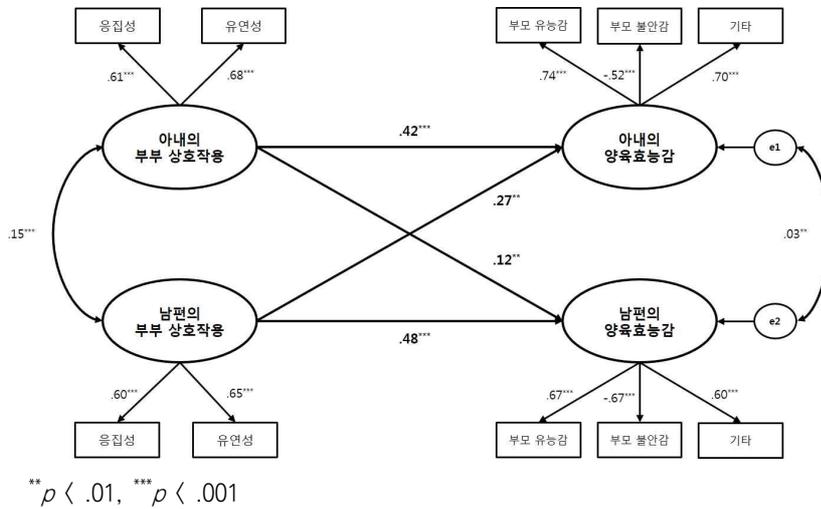
Model	$\chi^2$	df	CFI	TLI	RMSEA	$\chi^2$ 차이검증
자기효과 등가제약	181.21	50	.921	.945	.043	$\chi^2 (1)=9.32, p < .01$
상대방효과 등가제약	179.30	50	.923	.945	.042	$\chi^2 (1)=8.15, p < .01$
아내 결혼만족도 등가제약	188.30	50	.923	.944	.042	$\chi^2 (1)=15.52, p < .01$
남편 결혼만족도 등가제약	179.21	50	.922	.944	.041	$\chi^2 (1)=14.79, p < .01$

#### 나. 부부 상호작용이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검증

부부 상호작용이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그림 3]과 같이 모형을 설정한 다음 구조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부인과 남편 집단 간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표 4>와 같이 총 4번의 등가제약을 진행하였다.

부부 상호작용이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한 결과,  $\chi^2 = 707.800(df=164)$ , CFI = .954, TLI = .946, RMSEA = .047으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 상호작용과 양육효능감의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를 검증한 결과를 살펴보면, 아내가 지각한 부부 상호작용은 남편의 양육효능감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편이 지각한 부부 상호작용 또한 아내의 양육효능감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부 상호작용이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은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모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등가제약을 한 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부부 상호작용이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아내의 자기효과( $\beta = .42, p < .001$ )와 남편의 자기효과( $\beta = .48, p < .001$ )는 서로 유의하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부부 상호작용이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기효과는 남편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부부 상호작용이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부인의 상대방효과( $\beta = .12, p < .01$ )와 남편의 상대방효과( $\beta = .27, p < .01$ )는 서로 유의하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부부 상호작용이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상대방효과는 남편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부부 상호작용이 아내의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자기효과( $\beta = .41, p < .001$ )와 상대방효과( $\beta = .27, p < .01$ )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부부 상호작용이 아내의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은 아내의 자기효과가 남편의 상대방효과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부부 상호작용이 남편의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자기효과( $\beta = .48, p < .001$ )와 상대방효과( $\beta = .12, p < .01$ )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부부 상호작용이 남편의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은 남편의 자기효과가 아내의 상대방효과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 부부 상호작용이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검증 결과

<표 4> 기본모형과 등가제약 모형 간의  $\chi^2$  차이검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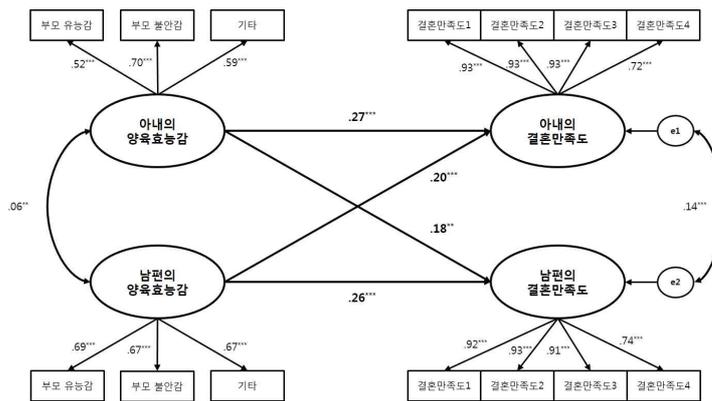
Model	$\chi^2$	df	CFI	TLI	RMSEA	$\chi^2$ 차이검증
자기효과 등가제약	248.20	88	.945	.967	.049	$\chi^2$ (1)=7.33, $p$ < .01
상대방효과 등가제약	249.10	88	.946	.965	.048	$\chi^2$ (1)=5.27, $p$ < .01
아내의 양육효능감 등가제약	250.27	88	.945	.966	.048	$\chi^2$ (1)=10.96, $p$ < .01
남편의 양육효능감 등가제약	249.91	88	.945	.967	.048	$\chi^2$ (1)=12.14, $p$ < .01

다. 양육효능감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검증

양육효능감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그림 4]와 같이 모형을 설정한 다음 구조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부인과 남편 집단 간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표 5>와 같이 총 4번의 등가제약을 진행하였다.

양육효능감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한 결과,  $\chi^2 = 475.400(df = 129)$ , CFI = .978, TLI = .974, RMSEA = .043으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효능감과 결혼만족도의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를 검증한 결과를 살펴보면, 아내의 양육효능감은 남편의 결혼만족도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편의 양육효능감 또한 아내의 결혼만족도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양육효능감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모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등가제약을 한 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양육효능감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아내의 자기효과( $\beta = .27, p < .001$ )와 남편의 자기효과( $\beta = .26, p < .001$ )는 서로 유의하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양육효능감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기효과는 아내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양육효능감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부인의 상대방효과( $\beta = .20, p < .01$ )와 남편의 상대방효과( $\beta = .18, p < .001$ )는 서로 유의하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양육효능감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상대방효과는 아내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양육효능감이 아내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자기효과( $\beta = .27, p < .001$ )와 상대방효과( $\beta = .20, p < .001$ )가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양육효능감이 아내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아내의 자기효과가 남편의 상대방효과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양육효능감이 남편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자기효과( $\beta = .27, p < .001$ )와 상대방효과( $\beta = .18, p < .001$ )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양육효능감이 남편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남편의 자기효과가 아내의 상대방효과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  $p < .01$ , \*\*\*  $p < .001$

[그림 4] 양육효능감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검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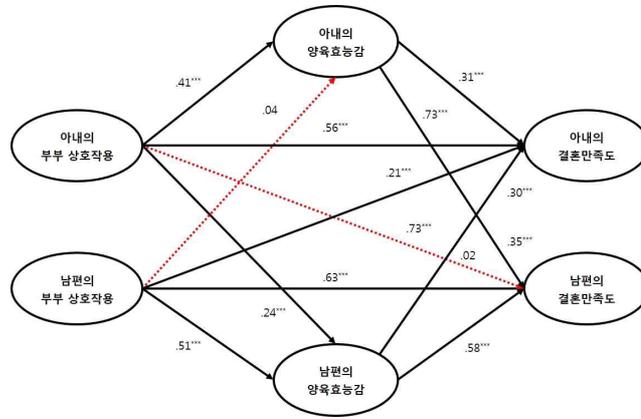
<표 5> 기본모형과 등가제약 모형 간의  $\chi^2$  차이검증 결과

Model	$\chi^2$	df	CFI	TLI	RMSEA	$\chi^2$ 차이검증
자기효과 등가제약	211.30	72	.967	.972	.041	$\chi^2 (1)=5.92, p < .01$
상대방효과 등가제약	212.19	72	.965	.973	.041	$\chi^2 (1)=8.07, p < .01$
아내의 결혼만족도 등가제약	214.01	72	.966	.973	.042	$\chi^2 (1)=13.91, p < .01$
남편의 결혼만족도 등가제약	210.27	72	.966	.972	.041	$\chi^2 (1)=11.37, p < .01$

#### 4. 부부 상호작용과 결혼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양육효능감의 매개효과 검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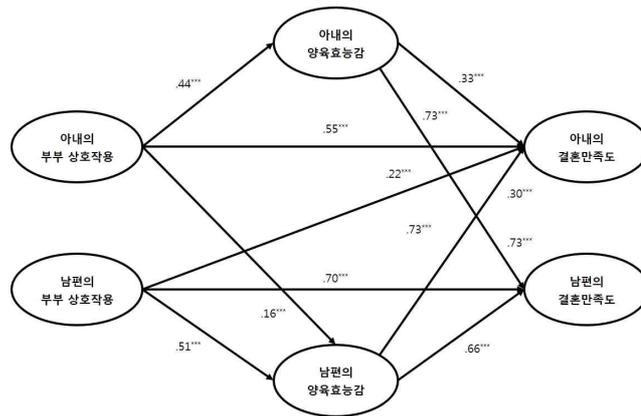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부부 상호작용이 결혼만족도와 양육효능감, 양육효능감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모형들이 모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부부 상호작용이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양육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그림 5]와 같이 구조모형을 설정하여 적합도를 검증한 결과, 부분매개모형은 통계적으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chi^2 = 1176.648(df = 337)$ , CFI = .965, TLI = .961, RMSEA = .041). 구체적으로 연구모형의 경로를 분석한 결과, 아내의 부부 상호작용에서 남편의 결혼만족도로 가는 직접경로와 남편의 상호작용에서 아내의 양육효능감으로 가는 직접경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살펴본 각각의 연구변인들 간의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검증 결과와는 몇몇 상이한 부분이 있다. 먼저, 앞선 결과에서는 아내의 부부 상호작용이 남편의 결혼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매개효과 검증에서는 아내의 부부 상호작용이 남편의 결혼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내의 양육효능감과 남편의 양육효능감이 추가되었을 때, 아내의 부부 상호작용이 남편의 결혼만족도에 직접적인 효과보다는 간접적인 효과가 더 큰 영향을 미쳐 직접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경로는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리라 사료된다. 그리고 남편의 부부 상호작용에 대한 앞선 결과에서는 남편의 부부 상호작용이 아내의 양육효능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매개효과 검증에서는 아내의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편의 결혼만족도라는 결과변인이 추가되었을 때, 아내의 양육효능감은 남편의 부부 상호작용과 남편의 결혼만족도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매개효과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두 개의 경로를 제거한 [그림 6]과 같은 수정모형을 경쟁모형으로 설정하고 적합도를 다시 살펴보았다. 그 결과,  $\chi^2 = 1187.555(df = 339)$ , CFI = .965, TLI = .961, RMSEA = .040으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본 연구모형의 적합도와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적합도 간의 차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을 경우는 간명성의 원리에 따라 더 간명한 모형을 선택하므로(허준 2014), 본 연구에서는 수정모형을 최종모형으로 설정하였다.



\*\*\*  $p < .001$

[그림 5] 연구모형 검증 결과



\*\*\*  $p < .001$

[그림 6] 수정된 연구모형 검증 결과

최종모형의 간접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아내와 남편 모두 부부 상호작용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자기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종모형의 총 6개 간접경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부 상호작용은 양육효능감을 거쳐 결혼만족도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둘째, 아내가 지각한 부부 상호작용이 자신 혹은 남편이 지각한 양육효능감을 거쳐 남편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두 개의 간접경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남편 혹은 아내가 지각한 부부 상호작용이 남편의 양육효능감

을 거쳐 아내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두 개의 간접경로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직, 간접효과, 자기효과 및 상대방효과 검증 결과

			경로	B( $\beta$ )	Z
직접 효과	자기 효과	아내	아내 부부 상호작용→아내 결혼만족도	.21(15)	-
		남편	남편 부부 상호작용→남편 결혼만족도	.30(20)	-
간접 효과	자기 효과	아내	아내 부부 상호작용→아내 양육효능감→아내 결혼만족도	.10(.03)	5.84***
		남편	남편 부부 상호작용→남편 양육효능감→남편 결혼만족도	.19(.05)	3.99**
	상대방 효과	아내	아내 부부 상호작용→남편 양육효능감→아내 결혼만족도	.05(.02)	2.34**
			남편 부부 상호작용→남편 양육효능감→아내 결혼만족도	.06(.03)	3.82***
		남편	아내 부부 상호작용→아내 양육효능감→남편 결혼만족도	.07(.04)	2.84**
			아내 부부 상호작용→남편 양육효능감→남편 결혼만족도	.03(.02)	2.91**
총 효과	아내	아내 부부 상호작용→아내 결혼만족도	.32(.23)	-	
		남편 부부 상호작용→아내 결혼만족도	.42(.39)	-	
	남편	남편 부부 상호작용→남편 결혼만족도	.29(.19)	-	
		아내 부부 상호작용→남편 결혼만족도	.20(.18)	-	

\*\*  $p < .01$ , \*\*\*  $p < .001$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자기-상대방 상호의존모형(APIM)을 활용하여 유아기 자녀를 둔 부부의 부부 상호작용과 결혼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양육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기 자녀를 둔 부부가 지각한 부부 상호작용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의 크기를 상대적으로 비교하여 살펴본 결과, 자신의 부부 상호작용이 자신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정적 영향과 자신의 부부 상호작용이 상대방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정적 영향 모두 남편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내와 남편 모두 결혼만족도는 상대방이 지각한 부부 상호작용보다 자신이 지각한 부부 상호작용 정도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부관계 만족도 및 결혼만족도와 관련된 변인의 경우 상대방보다는 자기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고 나타낸 Chen과 Li(2012)의 연구결과와 맥을 같

이 한다. 이를 통해 부부 상호작용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상대방의 효과도 있지만 무엇보다 자기효과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결혼만족도와 같이 어떤 상황이나 관계에 대한 만족감은 타인의 감정, 인정 등에 영향을 받는 것보다 그 상황이나 관계에 대한 스스로의 생각, 감정 등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유아기 자녀를 둔 부부의 결혼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자녀의 양육 및 가사 일에 대해 부부가 함께 소통하고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아내와 남편 스스로가 부부 간의 상호작용을 잘하고 있음을 인식하게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또한, 해당 결과에서는 아내의 부부 상호작용이 남편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상대방효과보다 남편의 부부 상호작용이 아내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상대방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통해 아내의 결혼만족도는 남편이 부부 상호작용을 어떻게 지각하느냐에 따라 변화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남편이 부부 간의 상호작용을 원활하게 한다고 지각할수록 아내가 결혼에 만족한다고 느끼므로, 아내의 결혼만족도는 남편의 결혼만족도보다 상대방의 부부 상호작용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부부의 결혼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부부가 함께 상호작용 하는 방법에 관해 배우고 익히는 방법과 더불어 남편들을 대상으로 상호작용 방법에 대한 교육이나 강의를 실시하는 것 또한 필요할 것이다.

둘째, 유아기 자녀를 둔 부부가 지각한 부부 상호작용이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의 크기를 상대적으로 비교하여 살펴보면, 자신의 부부 상호작용이 자신의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정적 영향과 자신의 부부 상호작용이 상대방의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정적 영향 모두 남편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내와 남편 모두 양육효능감은 상대방이 지각한 부부 상호작용보다 자신이 지각한 부부 상호작용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자녀 양육에 대한 효능감 및 탄력성과 관련된 요인의 경우 상대방보다 자신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고 나타난 손수경·장유나·노주성 외(2016), 연은모·최효식(2017)의 연구결과와 일맥상통하다. 연은모·최효식(2017)은 유아기 자녀를 둔 부부의 양육효능감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아내 혹은 남편 스스로가 부모로서, 배우자로서, 가족구성원으로서의 역할에 자신감, 행복감, 만족감을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다시 말해 자녀 양육 및 가정생활에 대해 자기 스스로가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양육효능감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만큼 자신을 둘러싼 환경에 대한 개인의 인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자신을 둘러싼 환경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자기 스스로 환경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아내 혹은 남편 스스로가 긍정적으로 자신의 환경을 인식할 수 있도록 돕는 상대방의 역할도 중요하고 할 수 있다. 따

라서 유아기 자녀를 둔 부부의 양육효능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부부가 함께 배우자로서, 부모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상호작용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해당 결과에서는 아내의 부부 상호작용이 남편의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상대방효과보다 남편의 부부 상호작용이 아내의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상대방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아내의 양육효능감은 남편이 부부 간의 상호작용을 어떻게 지각하느냐에 따라 변화될 수 있음을 알려준다. 즉 남편이 부부 간의 상호작용을 원활하게 한다고 지각할수록 아내의 양육효능감은 높아질 수 있으므로, 아내의 양육효능감은 남편의 양육효능감보다 상대방의 부부 상호작용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부부의 양육효능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부부가 함께 상호작용함으로써 양육에 관한 방향 및 방법들을 고안할 수 있는 방법과 더불어 남편들을 대상으로 부부 간의 원활한 상호작용을 도모하는 방법들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유아기 자녀를 둔 부부가 지각한 양육효능감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의 크기를 상대적으로 비교하여 살펴보면, 자신의 양육효능감이 자신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정적 영향과 자신의 양육효능감이 상대방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정적 영향 모두 아내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내와 남편 모두 결혼만족도는 상대방의 양육효능감보다 자신의 양육효능감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상대방의 양육효능감이 자신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보다 자신의 양육효능감이 자신의 결혼만족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나타낸 Chen과 Li(2012)의 연구결과와 일맥상통하다. 이를 통해 상대방이 결혼생활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느냐보다 자기 스스로가 자신의 가정환경과 결혼생활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있어서 상대방의 효과가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가 아니다. 개인이 결혼생활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스스로가 결혼에 대해 긍정적으로 느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개인이 그렇게 느끼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유아기 자녀를 둔 부부의 결혼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부부의 양육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아내와 남편 스스로가 양육에 대해 자신감과 신념을 가질 수 있도록 도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해당 결과에서는 아내의 양육효능감이 남편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상대방효과보다 남편의 양육효능감이 아내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상대방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통해 아내의 결혼만족도는 남편의 양육효능감 정도에 따라 변화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남편의 양육효능감이 높을수록 아내가 결혼에 만족감을

느끼므로, 아내의 결혼만족도는 남편의 결혼만족도보다 상대방의 양육효능감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부부의 결혼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부부 모두의 양육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방법과 더불어 남편의 양육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아버지 양육에 대한 강의, 자녀와 함께 하는 프로그램 등을 고안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넷째, 유아기 자녀를 둔 부부가 지각한 부부 상호작용이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양육효능감이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자신의 부부 상호작용이 자신의 양육효능감을 거쳐 자신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자기효과의 간접효과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내의 부부 상호작용이 남편 혹은 아내의 양육효능감을 거쳐 남편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간접경로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그리고 남편 또는 아내의 부부 상호작용이 남편의 양육효능감을 거쳐 아내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간접경로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결혼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부부 상호작용의 정도를 향상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양육효능감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양육효능감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간접효과에 대해 보고하고 있는 여러 선행연구들과 유사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임희수, 2013; Kwan, Kwok, & Ling, 2015). 부부 상호작용을 높게 지각할수록 양육효능감이 높게 나타나며, 양육효능감이 높게 나타날수록 결혼만족도도 높게 나타나는 것이다. 자녀의 양육, 가사 일 등과 같은 전반적인 가정생활에 대해 부부가 함께 의논하고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경우 부부가 함께 유아기 자녀 양육을 감당하게 되므로, 양육에 대한 자신감과 신념이 높아져 양육효능감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이처럼 양육효능감이 높아지게 되면, 부모 및 배우자로서의 역할에 대해 자신감, 행복감을 느끼게 되어 전반적인 결혼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유아기 자녀를 둔 부부의 상호작용이 양육효능감을 거쳐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있어서 아내와 남편 각자의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모두 의미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서로 매우 밀접하고도 쉽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부라는 관계의 특성을 보여주었다. 이처럼 결혼만족도에 대한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는 그 동안 많은 철학자들과 심리학자들이 개인의 내·외적 환경에 대한 만족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해 설명하기 위한 주장들과 맥을 함께 한다고 볼 수 있다. 여러 학자들 중에서도 실존주의 철학자들과 심리학자들, 교류분석 심리학자들 등은 개인의 전반적인 삶에 있어서 만족감을 인식하고 느끼기 위해서는 크게 자기 인식과 타인 인식을 중요하게 여길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구체적으로 자기 인식은 자신을 둘러싼 환경과 자아에 관해 어떻게 느끼고 인식하는지를 의미하며, 타인 인식은 타인과 관계를 맺음으로써 타인의 행동과 감정, 정서 등으로부터 받은 영향에 대한 자신의 인식을 의미한다(박은미, 2014). 이와 같이 개인이 특정

상황이나 관계, 환경에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도모하기 위해서는 자기 인식과 타인 인식, 즉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모두 다루어 줄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학자들의 의견과 본 연구결과를 참고하여 유아기 자녀를 둔 부부의 결혼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아내와 남편 각자의 상호작용 방법과 양육에 관한 불안, 신념, 자신감 등을 다루는 방안과 더불어 부부가 함께 상호작용하는 방법과 양육에 관한 부분들을 논의하며 배울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 결과에서는 남편의 양육효능감은 아내의 부부 상호작용과 남편의 부부 상호작용 모두에 영향을 받음으로써 아내의 결혼만족도와 남편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변인의 효과가 있는 것에 반해 아내의 양육효능감은 아내의 부부 상호작용에만 영향을 받아 아내의 결혼만족도와 남편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변인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편의 양육효능감은 자신이 부부 상호작용을 잘하고 있다고 지각하는 것과 아내가 부부 간에 상호작용을 잘하고 있다고 지각하는 것 모두에 영향을 받음으로써 부부의 결혼만족도를 높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아내의 양육효능감은 자신이 부부 상호작용을 잘하고 있다고 지각해야지만 긍정적인 영향을 받으며, 부부의 결혼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아내와 남편이 각자 부부 관계에서 상호작용을 원활하게 하고 있다고 느끼는 내용적인 부분과 특성 등이 다를 수 있음을 뜻한다. 다시 말해 아내의 양육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부부 간의 상호작용과 남편의 양육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부부 상호작용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아내가 지각하기에 부부 간에 자녀 양육이나 가사 일 등에 대한 상호작용을 많이 할수록 아내의 양육효능감이 높아져(정미라·조혜영·이순행, 2018) 결혼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반면, 남편은 부부 간에 서로를 지지하고 신뢰하는 상호작용을 많이 할수록 남편의 양육효능감이 높아져(김낙홍·박영숙, 2016) 결혼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따라서 결혼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아내와 남편 각각의 상호작용 방법, 양육효능감 특성 등을 이해하고, 그에 따른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본 연구의 한계점 및 추후연구에 대한 제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유아기 자녀를 둔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관해 한국아동패널의 자료 내에서만 추출했기 때문에 다양한 변인들을 포함하여 분석하지 못했다는 한계점이 있다. 그러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유아기 자녀를 둔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더 다양한 변인들을 포함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한국아동패널에서 실시한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통해 얻은 데이터를 활용하였기 때문에 결혼만족도, 부부 상호작용, 양육효능감에 관한 응답의 타당성에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면접법 등을 실시하는 질적 연구방법을 통해 보완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여러 선행 연구에 따라 유아기 자녀를 둔 부부들 중에서도 양육스트레스 수준이 가장 높고, 양육효능

감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시기를 설정하여 살펴보았으므로 본 연구결과를 모든 유아기 자녀를 둔 부부에게 적용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유아기 자녀의 연령대를 더 폭넓게 설정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가진다. 첫째, 유아기 자녀를 둔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대한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에서는 아내 또는 남편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으므로 이 시기에 중요한 과업인 자녀 양육 및 가사 일에 대해 부부가 함께 논의하고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과정인 부부 상호작용에 대해 살펴보는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유아기 자녀를 둔 아내와 남편 모두를 대상으로 하여 이들이 전반적인 가정생활에 대해 서로 의논하며 역할을 융통성 있게 수행하고, 상호작용하는지에 따라 양육효능감과 결혼만족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검증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유아기 자녀를 둔 부부의 상호작용이 양육효능감을 거쳐 결혼만족감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아내와 남편의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를 함께 살펴봄으로써 결혼만족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부부 각자를 위한 방안과 더불어 부부 모두, 즉 상대방효과를 위한 방안을 함께 제안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 V. 정책적 제언 및 시사점

본 연구결과를 통해 정책적 제언과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유아기 자녀를 둔 부부 모두를 대상으로 부부 상호작용이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부부 상호작용이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양육효능감이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각각의 경로 모두 아내, 남편의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상대방효과에서는 아내의 양육효능감, 결혼만족도가 남편의 양육효능감과 결혼만족도보다 배우자의 영향을 더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내의 결혼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남편이 지각하는 부부 상호작용과 양육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이나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킬 필요성을 시사한다. 이처럼 남편에 대한 교육들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고 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남편들에 대한 양육 교육, 부부 상호작용을 위한 부부 집단상담 등을 실시하고 있지만, 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방법들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교육이나 프로그램들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업, 지방자치단체 등의 협조와 제도적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예컨대, 기업에서 해당 교육들을 연계해서 진행한다거나 지자체에서

는 공무원,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아버지 교육, 부부 상호작용 프로그램 등을 진행함으로써 남편들을 위한 교육들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며, 정부 차원에서는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남편의 양육효능감은 남편이 지각한 부부 상호작용과 아내가 지각한 부부 상호작용 모두에 영향을 받아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 아내의 양육효능감은 아내 자신이 지각한 부부 상호작용에만 영향을 받아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 이는 남편과 아내 각자가 지각하는 부부 간의 원활한 상호작용 방법이 다를 수 있음을 의미하므로, 이를 참고하여 부부가 건강하게 상호작용 하는 방법을 고안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아내와 남편이 직접 참여하여 서로가 지각하는 이상적인 상호작용 방법에 대해 탐색하고 실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 부부가 함께 참여함으로써 결혼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에서는 부모 모두를 대상으로 부부 간의 상호작용을 통한 양육효능감 향상 등에 대한 부모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이에 대한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동시에 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부부교육이나 부부 참여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현재 우리나라에는 유아기 자녀를 둔 부부의 결혼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화된 교육이나 프로그램 개발이 미미한 실정이다. 이혼율 증가가 사회적 문제로 나타나고 있는 우리나라에 결혼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이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들 중 하나일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부의 결혼만족도를 향상시키며 건강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한 교육을 개발하여 제도화 시킨다면 더 많은 부부들이 해당 교육에 참여하여 결혼만족도를 높이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지원들을 통해 유아기 자녀를 둔 부부들의 결혼 및 전반적인 가정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게 된다면, 이는 해당 부부와 자녀의 심리·정서적인 발달을 도모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 또한 미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이와 같은 영향은 낮은 혼인율을 나타내는 우리나라에 결혼에 대한 긍정적 효과를 확산시킴으로써 국가적·사회적·경제적으로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 참고문헌

- 김경미(2009). 부부의 성격특성과 갈등의 상호작용이 결혼만족도와 이혼의도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충북대학교 대학원.

- 김낙홍·박영숙(2016).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자기분화와 부모효능감의 관계에서 배우자 지지의 매개효과. 한국어린이미디어학회, 15(4), 243-264.
- 나남숙·이인수(2017). 자기분화, 결혼만족도, 헌신간의 관계: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적용. 한국가족치료학회, 25(1), 115-135.
- 노성향(2018).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 자존감과 결혼만족도의 관계: 아버지 양육참여와 부부갈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열린부모교육학회, 10(2), 1-15.
- 박은미(2014). “자기실현”의 행복을 위한 철학상담. 서강대학교 철학연구소, 39, 67-99.
- 손수경·장유나·노주성·홍세희(2016). 부와 모가 지각한 부의 양육참여, 부와 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우울 간의 종단적 관계 : 잠재성장모형을 이용한 행위자-상대자 상호의존 모형(APIM)의 적용. 육아정책연구, 10(3), 25-50.
- 신숙재(1997).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사회적 지원과 부모효능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연은모·최효식(2015). 유아 자녀를 둔 부모의 정서적 자녀가치, 양육스트레스, 결혼만족도 간 관계의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한국영유아보육학회, 90, 79-108.
- 연은모·최효식(2017). 유아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효능감, 행복감과 자녀의 사회적 유능감 간 관계.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17(14), 197-216.
- 오미연(2005). 아버지와 어머니의 부모 효능감, 양육지식 및 민감성의 비교연구 - 영아기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석사학위논문. 전북대학교 대학원.
- 유계숙(2003). 가족학이론(관점과 쟁점). 서울 : 하우.
- 윤기봉·지연경(2017). 유아기 자녀를 둔 남편의 양육참여 및 맞벌이 부부의 양육스트레스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종단적 자기-상대방 효과. 한국인간발달학회, 24(3), 133-153.
- 이영진·장은미(2018).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가족 상호작용, 결혼 만족도, 부부 갈등과 아버지 행복감의 관계. 열린부모교육학회, 10(3), 101-122.
- 이희윤·조유현(2015). 부부의 관계신념지각, 배우자의 긍정적 행동만족, 의사소통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학회, 27(4), 62-88.
- 임희수(2013).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결혼만족도, 사회적 지지, 양육효능감 및 정서표현성 간의 구조관계분석. 박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대학원.
- 정미라·조혜영·이순행(2018). 6개월 영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배우자 지지, 양육효능감 및 양육스트레스 간의 구조적 관계에 대한 다집단 분석. 한국보육지원학회, 14(2), 39-58.
- 통계청(2018). 혼인율 및 이혼율. <http://kostat.go.kr>에서 2019년 5월 1일 인출.
- 허은경(2014). 부부간의 상호작용과 결혼만족도 및 신체적·심리적 건강 :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박사학위논문. 충북대학교 대학원.

- 허은경·김영희(2016). 부부간의 상호작용이 결혼생활만족도와 신체적·심리적 건강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한국가족복지학회*, 21(3), 417-441.
- 허준(2014). 허준의 쉽게 따라하는 Amos 구조방정식 모형. 서울 : 한나래.
- Chen, L. H., & Li, T. (2012). Role balance and marital satisfaction in taiwanese couples: an 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odel approach. *Social Indicators Research*, 107(1), 187-199.
- Chung, H. (2004). Application and revision of the Kansas Marital Satisfaction Scale for use of Korean couples. *Psychological Reports*, 95, 1015-1022.
- Friedman, H., & Martian, L. R. (2011). *The Longevity Project*. In S. Choi (Ed), Seoul: Samnarkers.
- Gibaud-Wallston, J., & Wandersman, L. P. (1978). *Development and Utility of the Parenting Sense of Competence Scale*. Toronto: Paper presented at the meeting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Korja, R., Piha, J., Otava, R., Lavanchy-scaiola, C., Ahlqvist-Bjrkroth, S., Aromaa, M., & Rih, H. (2016). Mother's marital satisfaction associated with the quality of mother-father-child triadic interaction. *Scandinavian Journal of Psychology*, 57(4), 305-312.
- Kwan, R. W., Kwok, S. Y., & Ling, C. C. (2015). The moderating roles of parenting self-efficacy and co-parenting alliance on marital satisfaction among chinese fathers and mothers.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24(2), 3506-3515.
- Lavner, J. A., Karney, B. R., & Bradbury, T. N. (2016). Does couples' communication predict marital satisfaction, or does marital satisfaction predict communicat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78(3), 680-694.
- Rehman, U., Janssen, E., Newhouse, S., Heiman, J., Holtzworth-Munroe, A., Fallis, E., & Rafaeli, E. (2011). Marital satisfaction and communication behaviors during sexual and nonsexual conflict discussions in newlywed couples: a pilot study. *Journal of Sex & Marital Therapy*, 37(2), 94-103.
- Rivero, N., Martinez-Pampliega, A., & Olson, D. (2010). Spanish adaptation of the FACES IV questionnaire: psychometric characteristics. *The Family Journal*, 18(3), 288-296.

- 논문접수: 7월 30일 / 수정본 접수 9월 2일 / 게재 승인 9월 11일
- 교신저자: 이지민, 영남대학교 가족주거학과 교수, ljimin@yu.ac.kr

## Abstract

### Mediating Effects of Parenting Efficac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arital Interaction and Marital Satisfaction of Couples with Young Children : Focusing on the 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odel

Hyerim Han and Jimin Lee

This study examined the actor and the partner effects of the marital interaction of married couples and their parenting efficacy and marital satisfaction. In this study, the 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odel(APIM) analysis method was applied using 7th year data among the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s.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are so follows. First, the marital interaction had both the actor and the partner effects on marital satisfaction. Second, the marital interaction had both the actor and the partner effects on parenting efficacy. Third, the parenting efficacy had both the actor and the partner effects on marital satisfaction. In addition, the parenting efficacy for both the actor and the partner mediated between marital interaction and marital satisfaction of couples with young children. The findings present interpersonal aspects as well as intrapersonal aspects of marital satisfaction, marital interaction, and parenting efficacy.

Keyword: marital satisfaction, marital interaction, parenting efficacy, actor effect, partner effect